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4년 5월 28일(화)
관련자료: 사진자료

현대차그룹, 제네시스 & 성능개발담당에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영입

- 차량 성능 강화 및 전동화 전환 가속 위해 세계적 차량개발/성능 전문가 영입

… 내연기관 및 전동화 차량 개발을 동시 경험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 현대차·기아 R&D본부 내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조직 신설 및 보임

… 제네시스 전 차종 및 고성능 차량 개발 총괄 역할 수행 예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럭셔리, 고성능 차량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 영입을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R&D본부 산하에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을 신설하고 만프레드 하러(Manfred Harrer) 부사장을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28일(화) 밝혔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포르쉐, 애플 등에서 근무하며 연구개발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현대차·기아 R&D본부에서 제네시스 및 차량 성능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는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제네시스 전 차종 개발을 총괄하며 제네시스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 ‘N’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차량 개발을



PRESS RELEASE

주도하며 고성능 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1997년부터 약 25년 간 아우디, BMW, 포르쉐 등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샤시 기술 개발부터 전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총괄까지 두루 경험한 차량 전문가다.

특히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포르쉐 재직 시절(2007~2021) 포르쉐의 주요 차종인 카이엔, 박스터 등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 개발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향후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전동화 톱티어(Top-Tier) 리더십 확보를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환 가속화에 기여하고, 고성능차를 포함해 현대차그룹 차량 전반의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은 “세계적인 차량 성능 전문가인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영입은 제네시스의 상품성을 진일보시켜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고성능 차량의 성능 향상 및 현대차·기아 차량의 전동화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의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모습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

※ 첨부 : 현대자동차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 프로필



PRESS RELEASE

■ 만프레드 하러 : 현대자동차 부사장

▷ 1972년생 (51세)

▷ University of Bath 기계공학과 박사 졸업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Munich 자동차공학과 석사
졸업

▷ 주요 경력

- 애플(Apple Inc.) Senior Director of Product Design Engineering
- 카리아드(Cariad) Domain Vehicle Motion and Energy Senior Vice President
- 포르쉐(Porsche) 카이엔 Product Line Vice President
- 포르쉐 샤시 및 ADAS 개발 Vice President

